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Think Globally, Act Locally"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이우균 교수

고려대 이희성 교수,
IPCC 신임 의장 취임



Q) 우리나라의 기후가 침엽수의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후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 녹색식물,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산림이 파괴된다는 것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sink)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상 어느 한 작은 지역(local)에서 산림, 즉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전 지구 차원의 흡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산림의 면적이 줄어드는 원인을 보면,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인위적 요인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에 인위적 요인이 강했으나, 요즘은 자연적 요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산림의 수종 면에서는 침엽수림은 줄고 활엽수림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의 증가가 침엽수에는 부정적, 활엽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적 측면에서 기상이라는 인자를 넣어 기후변화와 수목생장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기상인자는 공간적으로 연계성을 갖는 공간 자료이기 때문에 공간성을 갖지 않는 산림밀도, 토질 등의 자료와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당장 내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때문에 영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뒤에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크게 저감(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감(mitigation)은 "온실가스 배출(source)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와 같이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산업, 수송업이 배출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감축 노력 뿐만 아니라 농업, 시설, 가정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파리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위해 각 나라는 감축기여 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하고 지킴기로 협약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의 배출량을 줄이기로 제출하였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 중 하나는 경제적 방법으로, 산업 부문에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에너지-안전팀의 실천활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정 부문에서는 아직 교육적 수단에 한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지자체에서 기후변화대응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방지하는 적응(adaptation)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 하에서 현명하게 기후변화에 적응해 가는 정책마련과 이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에 대한 역량강화와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적응의 방법은 배출을 줄이더라도 기후변화 트렌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시스템을 잘 갖춰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 요인은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Q)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의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근본적으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왜 그린캠퍼스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린캠퍼스 활동이 보다 폭넓고 미래 지향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린캠퍼스의 "그린"은 꼭 환경에서의 그린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 균등한 발전, 세대 간의 불평등 해소, Gender 사이의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한 '그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섬'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Think Globally, Act Locally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지만 IT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GLP와 GCP와 같은 국제 조직과 함께 전 지구 차원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는 현명한 기후 변화적응을 위한 BK21+에코리더 양성사업단, 기후변화융합전공, 환경부지정 기후변화특성화 대학원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고려대학교 BK21+에코리더 양성사업단은 국회기후변화 포럼의 '201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중 교육부문의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학생들이 고려대학교의 위와 같은 교육제도들을 활용하면 과학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6일,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의장 선거가 개최되었고 고려대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이희성 교수가 선출되었다.

IPCC는 199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195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 세계 기후변화 정책에 기본이 되는 실행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이희성 신임 의장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이제 제한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며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로 인해 달라질 경제, 사회의 모습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밖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보지만 국내에서는 IPCC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게 현실"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희성 교수의 당선으로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시켜줄과 동시에, 한국이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아우르는 기후변화 대응의 첨단에 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녹색 지구를 지키는 나눔을 함께하세요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에서는
보다 친환경적인 캠퍼스 운영을 위하여
녹색환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눔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고려대 그린캠퍼스 홈페이지(kugc.korea.ac.kr)의 녹색환경기금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담당부서에 연락, 및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에너지-안전팀
전화: 02) 3290-2760
홈페이지: kugc.korea.ac.kr



Green Today

그린캠퍼스 가상발전소 '시동'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 회장교를 맡고 있는 고려대를 포함한 회원대학 16개교가 전력 소비 감축을 목표로 '가상발전소'를 준공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염재호 총장(고려대)과 '가상발전소'에 함께 참여한 15개 회원대학의 총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그린캠퍼스 '가상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가상발전소란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 절전 활동 또는 자가발전 등을 통해 전력을 충당, 전력 공급 망에 연결된 발전소가동을 대체해주고, 신규 건설을 억제하는 가상(Virtual)의 발전소를 말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산하 시설 전력 감축을 통한 전력거래소 차익 효과를 본 바 있으며, 여기서 거둔 연간 2억 원 이상의 전기 판매 수익금은 올해부터 에너지복지에 투자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성과를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에 16개 대학이 가상발전소 조성 사업에 참여기로 약속했다. 참여한 회원대학 16개교는 절전을 통해 5,600kWh급의 전력생산 효과를 만들고, 이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서울시내 대학의 참여로 민간 기업을 포함 서울시 전체로는 157개소가 가상발전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에너지 소비 비중이 큰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3년 35개 대학과 그린캠퍼스 조성 MOU를 체결하고 이를 지원해왔다. 더불어 2017년까지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을 2012년 대비 10% 감축한다는 목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상발전소는 발전소 건설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생에게 살아있는 강의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그린캠퍼스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 중국 그린캠퍼스 네트워크, 일본 그린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주관하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 UN Global Compact Korea에서 후원하는 한국그린캠퍼스 국제세미나가 2015년 11월10~11일 이틀간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그린캠퍼스 협의회의 60여개 회원대학교에서 선정된 15개 팀과 일본 교토대학을 비롯한 그린캠퍼스 관련 핵심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우수사례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아시아 그린캠퍼스 운동의 확산을 위해 각국과 각 대학에서 추진한 사례들의 정보를 공유하였다. 한편 이번 한중일 그린캠퍼스 국제세미나를 계기로 그린캠퍼스 부산선언도 진행되었다.

제 3회 그린캠퍼스 포럼 개최



▲ 그린캠퍼스협의회 포럼 개최

지난 11월 2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 제 3회 포럼에서 '기후변화시대의 도시계획과 대학발전'에 대한 열린 토의가 진행됐다. 전반적으로 대학생들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으나 실천 방법과의 결부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시대에 맞는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론적 문제 도출이 아닌 실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미래 리더를 키워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KU-Future Idea Bank에서 자유롭게 제안해요!



본교 에너지·안전팀은 학내구성원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KU-FIB를 신설하였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소정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kugc.korea.ac.kr > 고장 수리 > FIB에서 작성할 수 있다.

서울시, 새는 에너지 잡는 '우수건물' 선정

서울시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교체, 단열개선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한 건물을 '서울시 에너지 효율화 우수건물'로 선정하고 인증명패(사진)를 수여한다고 2월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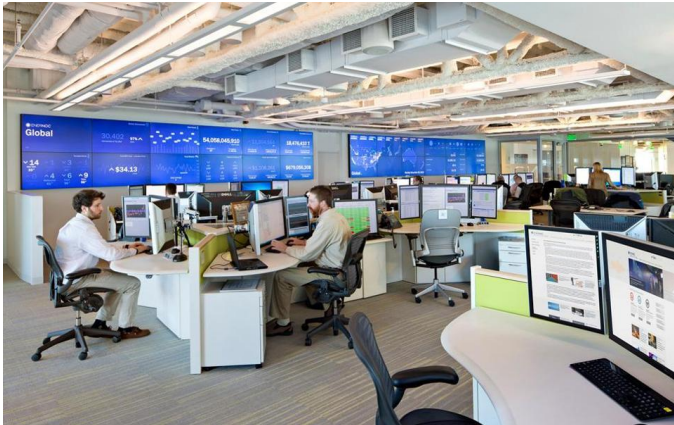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형 건물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함께 건물주·관리자·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절약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이번 발표에는 총 18곳이 '에너지효율화 우수건물'로 선정되었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건물의 새는 에너지를 줄이고, 쓰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효율화 비용 부담에 대한 문턱을 낮췄다"며 "인증제를 통해서 에너지관리의 사각지대인 중소형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Interview 그린캠퍼스를 묻다

“온실가스 절감 위해선
개인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EnerNOC 정지윤 매니저

Q) 더 효과적이고 깨끗한 전력공급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급변 겨울에 유례없이 따뜻하다가 급작스러운 폭한이 왔을 때 뉴스에서 앞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셨을 것 입니다. IPCC에 따르면 최근 100년간 약 0.75℃의 지구온도상승이 있었고 향후 10년간 약 2℃의 추가적인 온도 상승이 예상된다 합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의 40%가 발전 부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절감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전력수요반응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전력수요반응제도는 학교나 공장 등이 가상발전소처럼 전력 거래소 요청 시간에 약정한 만큼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발전소가 전력시장에서 받는 건설비/연료비 보상과 동등한 구조로 정산을 받는 제도 입니다. 수요자원이 가상발전소로 전력시장에 참여하면, 피크 시간대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소를 새로 짓는 비용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kW 당 연간 600g의 탄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개인 한사람의 온실가스 절감활동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중 누구나 전기절약이나 쓰레기 절감 같은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면서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환경을 보호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까?”

기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소비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물을 소비는 세계인구 70억명 가운데 일부 산업화 국가의 시민들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미국인 1인당 평균 연간 전력사용량으로 방글라데시 시민 40명이 연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근검절약이 미덕인 시대에서 다소 비 중심의 생활로 바뀐 것 같습니다. 더 큰 집, 더 큰 차를 추구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개인들이 절약과 절제를 실천하는 것이 온실가스 절감의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EnerNOC 임직원들은 WeSpire라는 온실가스 절감 활동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WeSpire에 자신이 실천한 온실가스 절감 활동을 기록하면 그 활동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절감된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보여줍니다. 친구 또는 팀별로 누가 더 많이 온실가스를 절감하였는지 시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이틀만 집에 차를 두고 출근해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1.8t 감축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2013년부터 전력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냉난방기기 제어에 대해 총장실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심했으나, 요즘은 학생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수요반응제도 참여에 대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진취적인 대학생이라면 환경보호 활동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전력수요반응제도 참여에 있어서 대학사회 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고려대학교 에너지·안전팀 교직원분들과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KU-The Future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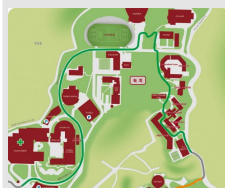


에너지·안전팀에서는 그린캠퍼스의 일환으로 본교의 미래와 개척하는 지성인을 키우는 목적에 충실하고자 KU-The Future Road(미래길)이라는 산책코스를 개발하였다. 자유생태길, 정의생태길, 진리생태길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kugc.korea.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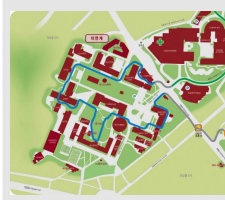
자유생태길 (인문)

- 시간 : 약 1시간 소요
- 거리 : 약 5Km
- 코스 : 정경대 후문길 → 국제관 뒷길 → 문과대학 앞길 → 대강당 앞길 → 중앙광장 중앙길 → 정문 → 백주년기념관 옆길 → 경영대본관 옆길 → 현대자동차경영관 옆길 → 사범대학본관 옆길 → 중앙도서관 앞길 → 법학대(구관) 옆길 → 동월글로벌리더십홀 앞길 → 다람쥐길 → 인촌기념관 후문길



정의생태길 (녹지)

- 시간 : 약 1시간 소요
- 거리 : 약 5Km
- 코스 : 안암병원 입구 → 의료원주차빌딩 옆길 → 안암병원 장례식장 옆길 → 녹지운동장 앞길 → 화정체육관 앞길 → 한국학관 셋길 → 안암학사 길 → 차고 앞길



진리생태길 (자연)

- 시간 : 약 50분 소요
- 거리 : 약 4Km
- 코스 : 생명과학대(동관) 뒷길 → 우정정보관 앞길 → 미래융합기술관 앞길 → 애기능생물관 옆길 → 애기능길 → 제2공학관 뒷길 → 구조물진동실험관 앞길 → 애기능길 → 공학관 뒷길 → 산학관 앞길 → 아산이학관 앞길 → 생명과학관(서관) 뒷길 → CJ식품안전관 옆길앞길

KU 그린캠퍼스

KU-The Future 전동카트 (Green Car) 공유제 시행



본교 구성원들과 전동카트(Green Car)를 공유할 계획이다. 전동카트(Green Car)는 학교 포털에 있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지구Earth, 2007> 감상문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은 1월 7일 13시 중앙광장 108호에서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가졌다. <남극의 눈물, 2011>과 <지구Earth, 2007>를 감상하고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이었다. 각자 감상문을 작성해 의견을 공유하며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로서의 의지를 다졌다.

흔히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이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동정심이나 연민에 호소하기도 하고, 권위자의 견해에 근거하여 주장을 강요하기도 하고,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 꽤나 많은 수의 다큐멘터리들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영화 '지구'는 보통의 다큐멘터리들과는 달리 감정에 호소하지도, 권위에 의존하지도, 강압적인 협박을 가하지도 않는다.

대신에 이 영화는 영화의 상영시간 내내 여러 장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만 한다. 아기 종달새의 첫 날갯짓의 순간, 따뜻한 남쪽 나라의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 코끼리 모자의 추억 여행, 북극곰이 눈발 위를 굴러다니는 모습... 그렇다고 영화가 아름다운 장면들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살기 위해 달리는 어린 양과 이를 쫓는 늑대 간의 추격전도, 새들이 목숨을 걸고 난기류를 뚫는 장면도, 새끼오리의 3미터가 넘는 나무 위로부터의 번지점프도 모두 이 영화에 담겨있다. 영화 '지구'는 그저 보여줄 뿐이었다. 도시의 마천루들에 둘러싸여 보지 못했던,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사느라 관심이 없었던 지구의 또 다른 모습들을. 그 혼한 설득도, 강요도 하나 없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주는 충격은 상당하다. 지구의 주인은 당연히 인간이라는 마음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자리해온 생각을 끄집어내고, 비틀어낸다. 또한 우리가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듯이 다른 생명체들도 우리만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 8기 홍보대사 김나영(사회13)

고려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별:자리 박세훈 총학생회장



Q) 48대 총학생회에서는 그린 캠퍼스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있나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총학생회 일을 하면서 그린캠퍼스 백완중 팀장께서 그 당시의 대학원 총학과 저희 총학 담당자 한명, 그리고 팀장 세명에서 그린캠퍼스 운영위원회를 꾸리셨었습니다. 작년 총학에서 기획했던 열람실에 화분을 두는 행사는 팀장께서 총학과 연계하여 활동

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총학도 열람실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잘 맞아서 협력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린캠퍼스 활동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린캠퍼스에서 기획한 여러 활동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을 총학과 공유하는 과정이 있다면 좋은 안건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학내에서 에너지 절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의 입장에서선 아무래도 '등록금도 냈는데 왜 냉난방을 굳이 편안한 생활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학교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고려해야 하기도 하고 비용 절감문제 그리고 교육적 측면의 이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고 결정 할 겁니다. 결국은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기간엔 열람실이 만석이지만 방학의 경우는 비교적 학교에 사람이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열람실 일부를 소등하는 지침을 학교 측이 학생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의 의도는 좋았지만 학생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난여론이 굉장히 거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학생들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있고 학교와 학생들과의 소통이 진행이 되고난 후에 순차적인 과정을 밟는다면 취지가 좋기 때문에 수월하게 에너지 절약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엔 학생회의 역할이 크겠죠?

Q) 마지막으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나가다 보기도 했지만 작년에 운영위를 들어가면서 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환경 신문 발행이나 나눔 활동 등을 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처음엔 솔직하게 "저걸 왜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많은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죠. 저처럼 의문이 많은 학생 분들이 게실 거예요. 그린캠퍼스 활동이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결국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홍보 대사들이 어떻게 기획을 잘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방적인 절약을 강요하는 것이나 외적으로 뭔가를 나눔 하는 것보다도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것과 그린캠퍼스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8기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지영(생명공학13), 김나영(사회13), 차준하(미디어15), 김태형(전기전자공학14), 박현근(통계09), 조아영(생명과학12)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8기 위촉식



지난 2016년 1월 4일 본교 서운호 관리처장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8기로 활동하게 된 박지영(생명공학부), 김나

영(사회학과), 김태형(전기전자공학부), 박현근(통계학과), 조아영(생명과학과), 차준하(미디어학부) 6명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본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8기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에너지 감시 활동, 그린캠퍼스 홍보활동, 텀블러 및 친환경 가슴기 배부 행사, KU생태길 조성, 교내의 단체 연계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8기 기획안 발표회

2015년 12월 28일 중앙광장 강의실에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8기의 기획안 발표가 있었다. 홍보대사로서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앞으로 활동에 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가 끝날 때마다 에너지·안전팀 황선호 과장의 피드백이 이어져,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이날 발표회는 홍보대사들의 그린캠퍼스 활동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 기획안을 발표하고 있는 홍보대사 8기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란?

2012년 3월 2일에 신설된 본교 에너지·안전팀은 근래에 증가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 이상 기후 등의 기후문제에 주목하여 다양한 에너지 절약 사업을 실천해오고 있다. 캠퍼스 내의 전반적인 전력사용량을 관리하는 활동 외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그린캠퍼스에 관한 인식을 홍보하고 실천을 이끌어내는 “홍보대사 활동”이 있다.

2012년 7월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기로 시작된 이 홍보대사 활동은 어느덧 8기를 배출하였다. 매년 구성원은 달라지고, 방학에만 활동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홍보대사들은 열정과 적극성으로 교내 에너지 감시 활동, 그린캠퍼스 홍보활동을 하는 등 본교를 그린캠퍼스(Green Campus)로 만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은 그린캠퍼스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학생과 학교 사이의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교내 에너지낭비 감시 업무뿐만 아니라 그린캠퍼스 관련 활동 진행과 참여를 통해 본교를 그린캠퍼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활동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Green Campus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 다소비기관인 대학이 주도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앞으로도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활동이 큰 힘이 될 것이다.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 방학중 교내 에너지 감시 활동

학생들은 인문계·자연계·녹지캠퍼스의 각 건물을 순찰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18~20℃)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에너지 사용 실태를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빈 강의실에 켜져 있는 전등이나, 채광이 좋은 복도 등지에 켜진 전등을 끄는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권장하는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그린캠퍼스 홍보 활동

본교 에너지·안전팀에서는 기후변화 및 자원낭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캠퍼스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홍보대사들은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고안해 왔고 그에 따른 홍보 계획을 하나씩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홍보대사 8기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 및 중앙광장과 하나스퀘어에서 각각 진행한 텀블러, 가슴기 나눔 이벤트와 설문조사 실시, KU생태길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실행하였다. 또한 에너지·안전팀의 지원으로 교내 각 부서와 다양한 연계가 가능하기에 기존의 학생들만이 하던 활동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6, 7면 참조.)

녹색 성북 그린캠퍼스 협의회

성북구청
SEOBUK-GU OFFICE

고려대학교
GORYEODAE UNIVERSITY

국민대학교
KMU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서경대학교
SEOKYEONG UNIVERSITY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한국예술종합학교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온실가스 목표관리협의회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실무협의체입니다.

KOREA UNIVERSITY
1905

YONSEI UNIVERSITY
1864

KAIST
1971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학교

KU 그린캠퍼스 활동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8기 벤치마킹

2016년 1월 18일 홍보대사 8기 6명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동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을 견학했다.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도동 3,4동 주민들이 설립한 기관이다.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을 아지트로 하여 가구별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절전소'를 홍보하고,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발명품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에너지 슈퍼마켓에서 이번 나눔 물품인 친환경 가습기와 다양한 에너지 고효율 상품에 대하여 안내 받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가정별 에너지 사용량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하여 비교하고, 절약한 사연을 나누는 곳이다. 캠퍼스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약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가 없는 상도동 3,4동 아이들을 위한 성대골 마을 학교에서 자전거 발전기, 화목 난로, 태양열 온풍기 등의 에너지 체험 기구를 견학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는 "착한가게"중 대륙서점을 방문하였다. 마을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감탄한 홍보대사들은 캠퍼스에 도입해 볼 만한 절전 방안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학우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방안도 제안함으로써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살릴 수 있었다.



▲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제 3회 그린음악제 열려



2016년 12월 23일, 제3회 KU 그린음악제가 본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렸다. 에너지·안전팀은 이미 2013년도부터 그린영화제, 그린바자회, 그린미술제 및 그린음악제를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환경과 나눔의 중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실시된 제3회 KU 그린음악제는 성북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여 더 큰 의미를 담았다. 이번 음악제는 범지구적 환경의 중요성과 배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며, 환경보존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KU 그린캠퍼스 제휴 카페 3, 4호점 열려



2016년 1월 8일 학생회관 내 카페 오르고(cafe Orgo)와 미디어관 앞 골목에 위치한 카페 마지오레(MAGGIORE)에서 KU 그린캠퍼스 제휴 3호점, 4호점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본 제휴 할인행사는 그린캠퍼스 홍보대사가 일회용 컵 사용량 절감을 위해 기획한 텀블러 나눔 행사와 연계된 것으로 카페 오르고에서 음료수 구입 시 개인 컵을 사용하면 200원 할인을, 카페 마지오레에서는 음료수 구입 시 개인 컵을 사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순환자원거래소에서 싸게,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순환자원거래소 개장 및 이용 안내

- ① 홈페이지 상단 순환자원거래소 메뉴 클릭
- ② 집기비품, 기계기구 게시판에서 구입 원하는 제품의 제품번호, 제품이름, 수량, 금액 확인
- ③ 구매신청 게시판에서 구매신청 작성
- ④ 관리자의 답변이 올라오면 입금안내 받고 제품수령

본교는 대학 최초로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에게 집기비품 및 기계기구 등 불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자원절약 및 사회적 경비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순환자원거래소를 학교 포털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순환자원거래소는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그린캠퍼스 사업의 일환이자 자원순환운동으로서 이러한 온라인 거래소를 통하여 불용물품의 재사용, 재활용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교 그린캠퍼스 홈페이지의 순환자원거래소 탭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kugc.korea.ac.kr)

고려대학교 Green Campus 뉴스레터 7호



발행인: 관리처장
발행처: 고려대 관리처 에너지·안전팀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108호
편집인: 백완중
편집기자: 박지영, 김나영, 김태형, 박현근, 조아영, 차준하
전화: 02)3290-2760
홈페이지: kugc.korea.ac.kr

KU 그린캠퍼스 활동

텀블러 나눔 행사



▲ 텀블러 배포행사를 진행하는 홍보대사와 참여하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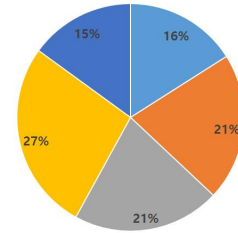
2016년 1월 8일, 중앙광장과 학생회관 2층에서 그린캠퍼스에 대한 홍보와 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텀블러 배포 행사'를 진행하였다. 본교 포탈, 고파스, KU그린캠퍼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온라인 홍보물과 설문조사 링크를 사전에 공지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텀블러 배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KU그린캠퍼스 제휴카페 3, 4호점 현관 제막식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의 열띤 관심으로 준비했던 물량인 텀블러 150개가 모두 소진되었다.

친환경 가습기 나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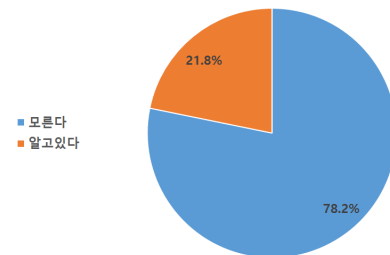


2016년 1월 20일 중앙광장 지하와 하나스퀘어 지하에서 그린캠퍼스에 대한 홍보와 교내의 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도 증진, 그린캠퍼스 제휴 카페 텀블러 할인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친환경 가습기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나눔 물품인 증발식 가습기는 공기 중 습도를 조절하고 체감 온도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가습기, 온풍기 등의 전열기구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많은 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 주어 준비했던 친환경 가습기 150여개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점이 아쉬울 정도로 친환경 가습기 나눔 행사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전에 진행했던 텀블러 나눔 행사가 그린캠퍼스 제휴 카페 텀블러 할인 행사를 홍보하는 측면이었다면, 이번 가습기 나눔 행사는 그 결과물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것이었고, 일회용품 절약 의식 고취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이벤트에 함께해준 학생과 교직원들도 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그린캠퍼스 활동을 응원해주어서 만족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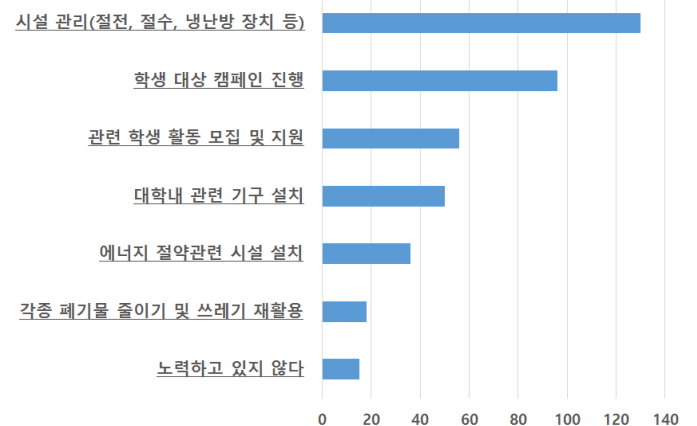
행사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202명)



‘귀하는 텀블러를 사용하십니까?’
전혀 사용안함 1 2 3 4 5 매번 사용함



‘교내에 그린캠퍼스와 제휴를 맺은 카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린캠퍼스를 위해 대학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8기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텀블러 사용 현황 및 그린캠퍼스 활동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배포 행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42%) 텀블러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보탬이 되기 위해, 카페에서 텀블러 할인을 받기 위해, 학교 정수기에서 물을 떠서 마시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반면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세척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어느 카페를 추가로 제휴를 맺으면 좋겠냐는 질문에는 교내의 모든 카페가 과반수를 차지했고, 안암역 인근에 위치한 교외의 카페도 다수를 차지했다.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PROACTIVE KU

녹색고대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대단한 일입니다



적정냉방온도



적정난방온도



플러그 뽑기



퇴실 시 소등

온실가스 감소와 녹색 고대는 우리들의 아주 작은 관심과
일상의 실천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와 미사용 플러그 제거,
퇴실 시 소등으로 우리의 고대를, 그리고 지구를 지켜주세요.

고려대학교 관리처

그린캠퍼스 관련문의
02-3290-2765~9